

광산구, 초고령사회 복지정책 선도

'늘푸른 프로젝트'·'휴블런스' 대통령상 2관왕... 복지혁신 이정표 영구임대·건강약자 등 사각 해소, 민관 협업 지속가능 체계 구축

광주 광산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실험이 초고령사회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정책 '늘푸른 프로젝트'와 건강약자의 병원동행 등을 돕는 '휴블런스' 등이 연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광산발' 복지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건강약자 증가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원스톱 병원동행 사회서비스 '휴블런스(휴먼+앰블런스, 사람 구급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앞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늘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의 이 같은 복지 선도도시 위상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기대고 있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토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LH, 광주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의료협회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거, 의료, 일자리, 돌봄, 공동체 등 주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인 늘행복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휴블런스'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로 늘어나고 있는 건강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다.

광산구는 '왜 건강약자를 위한 동행 서비스는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지난 4월부터 25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과 30여 차례 아이디어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동행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간호 전문 경력을 가진 동행매니저가 2인1조를 이뤄 병원 가는 준비부터 치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그동안 병원 가는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던 시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필요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받으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나타났다.

경력 단절 등으로 고민하던 시민 10명이 동행매니저로 활약하며 일자리를 얻은 점도 성과다.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빛났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동행매니저 교육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광산구의사회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와 휴블런스 우선 주차구역 확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협업 기관 확대, 동행매니저 전문교육 과정 신설 등 내년부터 '휴블런스'를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휴블런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강약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등과 협의를 전국 확산에 시동을 걸겠다는 목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휴블런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약자를 위해 광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안전망"이라며 "더 많은 지역자원,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결점 없는 건강복지 안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가 지난 11월25일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건강약자 원스톱 병원동행 서비스 '휴블런스'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김삼호 구청장 "휴블런스'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것"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일 "휴블런스는 전국 모든 건강약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서 "내년에는 전국 확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미 빛고을생활권협의회에 '휴블런스' 정책 공유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화되면서 수많은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를 지역의 문제를 넘어 사

회적 문제로 확장한 것은 '휴블런스'의 큰 시사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병원을 다니는 시민 중에선 광산구에 살아도 광주의 다른 자치구나 전남 인근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광산구로 와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 과제"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휴블런스 전국 네트워크'를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1년간 얼음팩 74만 개 재사용 성과

쓰레기 줄이고 환경 보호...2억6500만원 경제적 이익 창출

광주 광산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의 일환으로 추진한 얼음팩 재사용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334개소, 동 행정복지센터 21개소 등 총 355개소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얼음팩을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수거함에 모인 얼음팩은 매일 수거해 전문업체가 세척,소독해 식품업체, 전통시장 등 43곳에 공급한다.

재사용한 얼음팩은 현재까지 74만 여개(약 297톤)에 이른다.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정도 되면서 안정적인 수거-세척-재사용 체계가 구축되면서 매일 세척하는 양과 재사용 수요처로 배송되

는 양도 균형을 이르고 있다.

광산구는 얼음팩 재사용으로 2억6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얼음팩을 배출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과 재사용을 통한 업체의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결과다.

광산구는 "얼음팩 재사용 사업이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팩은 최근 코로나19, 명절선물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구매가 늘면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사용 후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는 데 이때 얼음팩 안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선제적으로 얼음팩 재사용 사업에 나서고, 시민과 민간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제1회 쓰레기환경경대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1회용으로 사용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얼음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재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얼음팩은 규격과 종류가 다양해 재사용을 위해서는 가능한지를 잘 따지고 분리 배출해야 한다. 현재는 18~24cm 정도인 젤타입 얼음팩만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 얼음팩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광산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960-8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

광주환경공단·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 합동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30일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캠페인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감사부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지하철에 탑승해 시민에게 리플릿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쌍암공원에 365일 무인 '스마트 도서관'

광주 광산구가 쌍암근린공원에 무인 자동화 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쌍암근린공원 내 별밤 미술관 옆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무인 자동화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췄다. 주민이 독서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책 모양을 형상화한 문화시설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2019년에 개관한 스마트도서관 2개소(신창·송정공원), 2020년에 개관한 6개소(침단·수완·광산구청·평동·하남·월곡)에 이어 이번 쌍암공원 1개소를 포함해 총 9개의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게 됐다.

이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도서관과(062-960-3949)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29일 쌍암근린공원 별밤 미술관 옆에 문을 연 스마트도서관.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